평화의 문 '통일'

2309 박지원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는 과연 남과 북을 통일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DMZ 평화순례 체험학습>에 참가하게 되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오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노력의 소산이라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하늘도 우리를 격려한 것일까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기상예보와 다르게 선선한 바람만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

그 하루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다름 아닌 '소이산'이다. 15~20분 정도 조용히 통일을 기도하며 오르는 작은 산이지만 정상에 서면 민통선지역, DMZ, 북녘 땅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정상에서 한반도기를 휘날리며 내 눈 앞에 펼쳐진 풍경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기억이 새겨져 있었다. 넓게 펼쳐진 평야와 푸른 산이 한반도의 통일을 응원하는 듯 했고,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와 어딘가 비슷한 국가,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국가, 외국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고, 형제라고 말하기엔 아직 적대적인 나라. 그러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말이 통하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반만년의 역사가 다시 살아날 때가 멀지 않았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길을 내실 있게 구축하려면 무한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본 체험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싶다. 그들에게도 틈이 있어야만 햇살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말이다. 나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주신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짧은 소감문을 마치도록 하겠다.

쌤 사랑해요 ^_^